

5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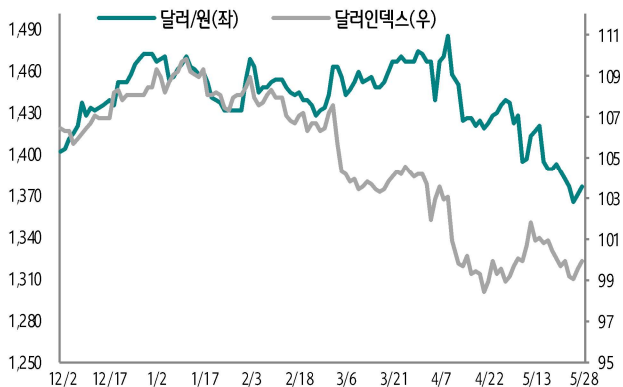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,375~1,385원
NDF 증가 : 1,370.70 (Swap point : -2.90, 1,373.60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원 환율은 금통위 금리결정을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 압력 받을 전망. 저성장 장기화 흐름에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이 유력하기 때문. 다만, 금리인하가 환율에 선반영 되었다는 판단과 한은이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상존하는 점은 달러원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. 美 연준 금리인하가 9월 이후로 예상되어 한-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점 또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. 이에 금일 환율은 소폭 상승 후 1,380원 수준 등락 예상.
- (전일 동향) 28일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6.0원 높은 1,375.5원에 개장 후 보합권으로 레벨을 낮췄으나, 美 소비심리 지표 개선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. 정오 무렵 1,378원에서 고점을 확인한 뒤 1,376.5원에 정규장 마감. 이후 야간거래에서 시장을 움직일만한 재료 부재한 가운데 1,376원에 마감.

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	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
한은 금리인하 및 성장률 하향 조정가능성으로 인한 원화 약세	한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경계감

KRW, USD Index



자료: 인포맥스

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,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[Global Market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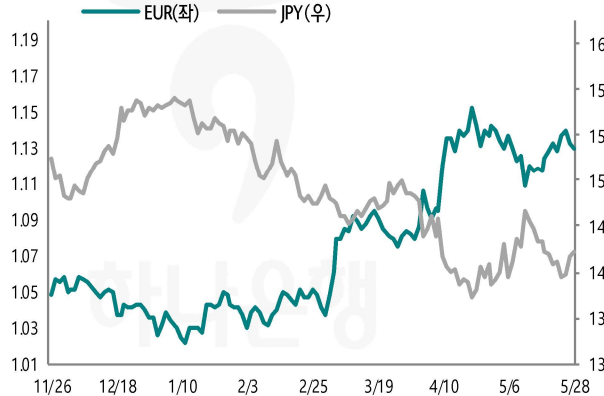
EUR/USD 예상 : 1.1250~1.1350
USD/JPY 예상 : 143.50~145.50

- (USD Index) 5월 소비자신뢰지수 개선, 제조업 활동지수 회복 등 美 경기에 대한 낙관론에 반등했던 달러인덱스는 이후 아시아장에서의 상승분을 반납했으나, 미국과 중국, 미국과 EU 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일 0.298 포인트 상승한 99.884에 마감.
- (EUR) 유로존 물가안정 속 ECB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. 이에 유로-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.0035달러 하락한 1.1293달러로 마감.
- (JPY) 일본 장기국채의 저조한 수요에 대한 우려로 장기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며 엔화 약세 흐름. 달러-엔 환율은 전장 대비 0.52엔 상승한 144.83엔으로 마감.

글로벌 통화 동향

구분	증가(전일비)	재정환율(KRW)
USD Index	99.884 (+0.298)	
EUR/USD	1.1293 (-0.0035)	1,554.52 (+3.03)
USD/JPY	144.83 (+0.52)	950.39 (+1.42)
USD/CNH	7.1923 (+0.0009)	191.37 (+0.94)

EUR, JPY



자료: 인포맥스

[Macro Analysis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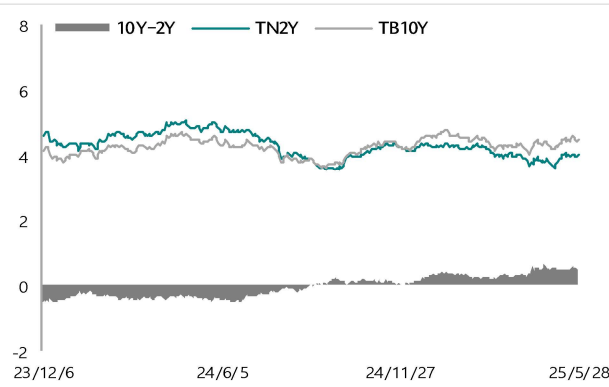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+48.1bp (전일대비 +0.014)

-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논의를 주시하는 모습.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항공, 반도체, 철강 및 주요 광물 관련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.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 속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투자심리를 억제하며 약세 마감. 다우지수 -0.58%, S&P500 -0.56%, 나스닥지수 -0.51% 기록. FOMC의사록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 언급에 다소 상승했던 美 국채금리는 강력한 해외수요 유입에 5년물 입찰 결과가 호조세를 보이자 상승폭을 축소하며 2년물은 1.7bp 상승한 4.000%, 10년물은 3.1bp 상승한 4.4810%에 마감. 국제유가는 미국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과 이란 핵 협상 결렬 우려에 상승 마감.

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

시간	내용	예상	이전
10:00	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	2.5%	2.75%
21:30	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	230K	227K
21:30	미국 GDP성장률 QoQ (1Q)	-0.3%	2.4%

US Treasury Market



자료: 인포맥스

한은
금통위
주시
,
환율
상승
전망